

현 낙농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박명술
축산경제신문 기자

○ 낙농업이 당연한 최대의 위기, 최대의 피해자이며
○ 이 위기 타개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는
○ 바로 낙농가들이다.
○ 오늘날 현 낙농 위기가 국내 낙농업을 한걸음 더 발전
○ 시킬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낙농가·
○ 정부·생산자단체·유업체 그리고 낙농업의 모든 이해
○ 당사자가 대단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아진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의 조류 속에 국내 낙농산업은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실상가상으로 IMF체제를 맞은 낙농산업의 현상황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보여진다.

구제금융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은 국가경제, 경기침체와 더불어 원화가치의 하락, 사료가격 인상, 우유 유제품의 소비위축, 분유 재고누증 송아지가격 폭락으로 인한 거의 모든 낙농종사자들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농가의 경영소득 또한 60~70% 감소한 상태이다.

더우기 국내 낙농업 및 유가 공업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접어들어 거의 완전 개방상태이며 혼합분유의 수입규제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현 대다수 낙농가들에게 큰 위기감을 조성, 중도에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데 있다.

이럴 경우 국내 낙농업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본 현 낙농 상황의 실상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개방의 물결속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하여 중도에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최악의 현상황을 기회로 삼아 능동적 대처를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관리의 병폐를 제거하여 질적인 성장을 기하는 농가도 있다.

개방화라는 거센 파고속에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을 시험받는 현상

황은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 산업일 수도 있고 쇠퇴산업이 될 수 있는 귀로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내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99.6%에 달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국내 농축산업도 선진 여러나라와 경쟁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가올 21세기는 지난 20세기의 산업화 논리만으로는 더이상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국내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육규모에 대한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전업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사육두수는 평균 25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합리적인 경영규모는 적소 50두 이상 평균 경산우 비율이(35~40두) 70%가 되어야만 낙농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낙농가의 농가당 평균 경산우 두수는 현재 20두 미만으로 선진낙농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둘째, 산유량 증가와 유질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의 문제점이다.

국내 낙농가의 연간 평균산유량은 6천 kg에도 못미치고 있다.

선진낙농국에 비해 2~3천kg가 떨어지고 있으며 원유생산비 또한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되고 있다.(예: 국내 원유생산비 kg당 4백13원, 미국 kg당 2백26원)

또한 유질향상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국내낙농업은 고름우유, 항생제우유과동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유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내낙농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유질향상은 현실적으로 농가의 수입증대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수입유제품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우유수급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우유수급체계가 각 유업체별로 농가와와의 계약에 의해 집유판매 하도록 되어있어 전체적인 수요증대의 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조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량의 중복집유로 집유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원유부족시 경쟁적 집유로 웃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원유 과잉시 집유거부 원유대 지불 지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넷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증대와 더불어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낙농경영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 낙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농업의 주변환경이 불리한 여건하에 놓여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IMF 한파에 의해 또다시 치명타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와 정부청사앞에는 어린송아지가 방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사된 어린송아지 목에는 현 낙농가들의 아픔을 담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좀 길러 달라는 애절한 구호였다.

생산비 1/5도 못받고 팔아야 하는 낙농종사자들 한때 1백20만원 하던 송아지 가격이 최근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아지 방사사태, 분유제고에 따른 유업체의 집유거부로 생산한 우유를 버려야하는 것이 현낙농의 실상이다.

최근 관련부처에서도 낙농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자주 열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현 낙농의 위기는 최근 IMF라는 한파에 의해 기인된 것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현 낙농산업이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과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적인 경영관리의 결과일 것이다.

은 산업이 IMF를 맞아 크나큰 시련을 맞고 있는 가운데 거품제거를 위한 자체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 낙농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7월30일 정부에서는 오랜 논란끝에 낙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낙농업계의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개선키로한 낙진법 개정안은 낙농진흥회 설립과 집유일원화, 검사의 공정화를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낙농진흥회 설립구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함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농인들도 자그마한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를 향한 대단합이 필요한 때다.

낙농업이 당면한 최대의 위기, 최대의 피해자이며 이 위기 타개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당사자는 바로 낙농가들이다.

최근 낙농인 스스로가 낙농자조금제도를 조성키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위기는 기회를 창출한다고 한다. 오늘날 현 낙농 위기가 국내 낙농업을 한걸음 더 발전시킬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낙농가·정부·생산자단체·유업체 그리고 낙농업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대단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아진다. ☹